

장대

제 16차 집행부 회의 안건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야기의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1998년 6월 9일)

1. 보고 사항

-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 2)각 국별 보고

2. 논의 사항

- 1) 여대생 먹고 살기 위한 대책위원회(가칭) 회의록과 활동보고, 계획사항
- 6월 25일에 우리학교에서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 그외에도 민우회 방중 여성노동 프로그램 기획단 참여 여부 결정과
- 자보 쓴 것 읽기
- 2) 한총련과 전여대협 관련 토론(문서참조)
- 3) 일정 잡기-1학기 평가 엠티 등등

3. 공지 사항

- 1) 다음주는 시험기간. 시험을 잘 봅시다.
- 2) 이번주 토요일에 선민이가 신촌에 온다는군... 모두 생일 축하를.
- 3) 다음 집부회의 일정은?

- 7/30 안건가
- 연세대의 7월 중 누가 참여.

여대생 먹고살기 위한 대책위원회(가칭)

여대생 먹고살기 위한 대책위원회(가칭) 회의보고 및 이후활동계획

1. 대책위 제기배경 및 기간 활동보고

* 제기배경

imf라는 경제위기의 상황은 서울역 지하도를 homeless들로 가득 메웠고, 대량의 실업으로 당장 먹고살기 위해 하루하루 일거리를 찾아 나서게 했으며, 집단 자살 등의 소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교묘하게 자본주의의 성차별 구조를 이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은폐하려한다. 그러기에 여성은 실업률 감소를 위해 비경제활동 인구로 남아있기위해 취업현장에서 제외되어야 했으며, 취업했던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한 정리해고의 0순위 대상자가 되어야 했고, 여대생은 아예 취업이란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지치고 힘든 남성가장은 있으되 어느곳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목소리와 대책은 없다. 오히려 온 경제위기의 해결을 여성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부터 출발한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말하고 표현하려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의 전부이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여성인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권, 노동권을 주장하고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먹고살기 대책위가 건설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먹고살기 대책위는 그동안 약3회정도의 모임을 진행했었다. 여성노동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대중적으로 담론화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자 했다. 대부분의 대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들은 이러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찾기어려웠고, 이 시기에 이대 대학원에서 여성노동을 수업을 받는 분들과 조순경 교수님의 강연회, 노동절을 계기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살맛나는 세상의 활동, 각 학교에서의 여성운동단위들의 활동 등으로 이 대책위는 꾸려질 수 있었다.

* 진행상황 및 참가단위

첫 번째 모임은 일단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모임을 진행하면서 결합했던 사람들은 일단 완결적으로 우리의 문제의식을 다 정리한 뒤 무엇을 하기 보다는 일단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문제제기를 하고 모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그리하여 우리가 두 번째 모임과 세 번째 모임의 논의를 통하여 어느정도 이후 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대 대학원내에서 여성노동관련 논문과 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료제공과 담론형성작업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후 활동계획으로 논의된 것은 2번팀에서 자세히 적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모임까지 결합했던 단위는 이대대학원 여성노동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대 여성위원회,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노동권확보와 성적차이의 윤리실현을 위한 여성모임 살맛나는 세상(연세대학교 여성모임 13번째, 수원대학교 총여학생회, 산업대 여성모임(준), 덕성여대 여성모임 꿈꾸는 달팽이, 동

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이 참석을 했으며 관악에서 1회 참관을 했었다.

2. 이후 활동계획

6/8 - 6/20 : 우리도 먹고살고 싶다!!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내에서 대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활동을 벌여나가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주장을 담은 글, 인쇄대자보, 기획자보를 일단 6/8일 주간에 공동으로 선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합시다. 예를 들면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본다든가, 항의엽서쓰기, 여대생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강연회, 여성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지를 얘기해보는 자리, 여대생의 취업현실을 알아보는 자리등을 마련해봅시다.

학교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봅시다. 이때 민우회에 준비하고 있는 예비취업생 사회진출을 위한 캠프 선전과 캠프 참가를 대중적으로 제안-개인적으로 제안서를 돌리는 것과 함께 제안서를 크게 대자보화하여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함께 꼭합시다-합시다. (캠프 소개와 신청서는 추후에 다시 서술)

대책위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은 단위에 제안하는 작업을 함께 하는 것도 해야겠지요.

6/25 여대생 먹고살기 위한 대책위 (가) 발족식 및 선포식

각 학교별로 그동안 벌였던 활동들을 총화하고 대책위를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의 내용을 채워나감으로서 이후 활동을 힘차게 결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대중적으로 공론화하고 알려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안과정에서부터 당일 프로그램까지)을 다음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일단 날짜는 6월 25일로 장소는 연세대학교로 확정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프로그램*

7/17 -18 예비취업생 사회진출을 위한 민우회 캠프

민우회와 재학생 학단위, 사회진출한 선배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예비취업생사회진출을 위한 캠프 준비를 발족식 이후부터 캠프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대생의 취업현실과 현시기 아무런 대책없는 여대생의 문제를 어떻게 대중적인 흐름 실천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내용마련과 캠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작업을 대책위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캠프 기획단에 결합하여 2가지의 내용(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실천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모색/캠프의 대학내 확장을 위한 제안, 선전, 교양작업등등)을 가지로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3. 기타

여노회에서는 6/9(화) 12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여성실업대책위 발족식 및 구직등록운동 선포식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많이 구체화되지 못했고, 참가하는 단위로 적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많은 활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문제의식
권익
노동권

아도 먹고살고 싶다!

처음부터 취업을 생각하고 준비했다. 내가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 활용하고 싶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 일시적인 사회경험을 아니라 평생 지속할 사회노동으로 일하고 싶다. 나름대로 각오와 준비과정을 거쳤고, 일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일에서 한 번 승부 해 보겠다.

아도 먹고 살고 싶다. 그러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순위로 잘렸고, 그나마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여성을 고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두들 나는 그나마 결혼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뿐이다.

아도 먹고 살고 싶다. 이제는,

힘들도 절망에 빠져 주위를 둘러보니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어디에도 나를 위한, 여성을 위한 실업대책은 없다. 여대생은 아예 취직되어보지도 못한 실정이고, 그나마 취업했던 여성노동자들도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아니지 않느냐며 부당해고 당하고 있지만, 언제나 보이는 것은 가엾은 남성가장이고 그들을 위한 대책 뿐이다. 여성들, 나의 어머니, 언니,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노동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여대생 먹고살기 위한 대책위원회 (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노동권 확보와 성적차이의 윤리 실현을 위한 여성모임 살맛나는 세상(연세대학교 여성모임 13번째, 수원대학교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 덕성여대 여성모임 꿈꾸는 달팽이, 서울산업대 여성모임(준))

민우회 캠프 기획팀 회의 보고서

- 예비 취업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캠프

<1차 기획팀 회의 내용>

1. 목적

- 1) 현 직장내 여성의 현실과 노동시장의 흐름의 인지로부터 사회진출 준비
- 2)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과 노동관의 확립
- 3) 여성노동단체와 예비노동자군인 대학생간의 연계강화
- 4)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개인갈등의 해소

2. 교육 지원여부 및 조직화 방안

- 1) 캠프 시 각 학교 지원가능여부 -참가비
- 2) 조직화

3. 교육방식 및 내용 예시

- 1) 참여중심의 교육실시
- 2) 예: 강의 <나의 인생, 나의 직업>
선배와의 대화/과제작업: 인생목표 설계하기

4. 토론

- 실제 많은 여성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 취업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 더욱 중요한 취업시의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대부분 취업에 대해 막연하게 사고하고 있으며, 그 준비나 계획들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 활동하는 사람이 대상일 경우 많은 부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다. 실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졸업이후에 현실적인 문제로 활동을 접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발현해 내는 데 많은 한계 지점들이 있다.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동의 입장을 할 조직적인 매개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등등등.....^^

<2차 기획팀 회의>

1.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예상인원은 70명 정도로 하자. 취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2.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 ▶ 예비 취업여성으로 서로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소통한다.
- ▶ 선배와의 대화 - 함께 공유한 문제들을 해소 할 수 있는 자리로 실제 취업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 취업후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 취업에 대한 문제보다 실제 취업한 이후의 문제점과 그 대책들이 더 중요하기에 실상을 파악하고 그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가져간다.
- ▶ 장기적인 인생설계 속에서 취업고민하기
- 실제 여성들은 사회 문화적으로든 사측에 의해서든 결혼 이후 직장을 사그라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여성노동권의 확보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며, 개인의 전망으로서 취업을 사그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여성의 취업을 사그라 할 필요가 있다.

여대생 취업난 극복캠프 - 어떻게 먹고 살것인가?

100대 기업 신규인력 중 남자 대졸은 32.3%, 여자 대졸은 6.6%!

100대기업 대졸 인력의 92.5%는 남자! (96년 통계)

IMF취업대란! 여성운선해고! 성차별적 실업대책!

여성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물론 취업 알선과 광범한 취업정보를말해주고자 함은 아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대생은 전체 여대생의 97%를 육박한다. 그러나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만도 못하다. 취업으
해도 성차별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우리의 정당하고 평등한 노동권은 멀지만 찾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영우너한 취직이 대안이라고?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전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취업현장에 있는 선배들과 만나 토론도 해보고 여성노동자의 현실도 공유하고 나의 적성과 인간관계도 분석해
보고, 그 속에서 흐릿한 전망이나마 거칠은 밑그림이나마 그려보자. 여성의 쫓대있는 경제적 독립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실 분은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하자!

일시: 1998.7.17~18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277-7883)

후원: 동덕여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참가비:2만원

우리(우)도 먹고 살고 싶다!!

▶여성정리해고 1순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하는 마당에..." 여성우선해고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부딪치게 되는 반발은 "여성만이 해고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남자 먼저 해고하라는 얘기냐?" "생계부담이 적은 여자부터 나가는 것이 순리 아니냐?"라는 식의 감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성 앞에 붙은 '우선'이라는 단어에 있다. 남성/여성 이분법(이것 아니면 저것) 하에 "니들 남성이 잘려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 '우선' 정리해고 배후에 감춰진 불합리한 성역할 분담과 성고정화 그리고 그것이 가하는 배제와 억압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누군가를 전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위기 극복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이다.

전체 실업자수 55만명

96년 대비 실업증가율	33%
남성 실업증가율	20.8%
여성실업증가율	60.0%

97년 2/4분기 고용동향

→ 위 자료 상에 나타난 남성/여성 실업률 증가 비율 수치를 통해,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여성차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실업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98년 5월 현재 실업자 수는 55만명의 10배에 가까운 5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공식 집계에 따른 것임을 고려 할 때, 현재 실업자 수는 500만명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의 자기분열을 조장하는 사회

역사적으로 경제위기시 여성은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해왔으며, 위기의 일차적 희생양이 되어왔다. 경제 호황기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미화하고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반면, 경제 불황기에는 여성의 고유영역을 가정으로 한정하고 일하는 여성을 가장의 일자리를 빼앗는 양심도 없는 인간으로 몰아친다. 게다가 주부들에게는 피곤한 가장들의 기를 살려줘야하고 쪼들리는 살림을 문제없이 이끌어가야 하는 의무감을 지우고 살림에 보탬이 되지 못함을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하게끔 만든다.

또 때론 쪼들리는 살림을 위해 '아무일'이나 찾아나서기도 한다. '남편 기 살리기 운동'이나 '여보,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라는 말들 속에는 주부(전업주부 뿐 아니라 일하는 여성을 포함하는)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부담감은 배제된 채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생하는 아버지에 대한 격려와 위로만이 존재한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동시에 위기 처한 집안을 잘 꾸려가야 한다는 압력과 강한 아내, 어머니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타개해나가야 한다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위기 속에 드러나는 자본-가부장제의 결탁관계

여성우선정리해고는 단지 위기 상황에서 터진 하나의 여성 차별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여성차별이 폭발한 것이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의 논리와 가부장제 하의 불합리한 성역할분담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되어 '여성' '우선'정리해고로 나타나는 것이다.

① "결혼이나 하지"-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텐데, 뭐하러 이 힘든 시기에 일을 하느냐?

<사례1>

두산 건설 주택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이정희씨는 97년 11월 결혼한지 한달여 뒤 결혼퇴직을 당했다. "결혼 전부터 계속 사직서를 쓰라는 강요를 못이겨 결국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위원회 '여성 차별해고 신고 창구'

② 여성의 고유영역은 가정. 그대 여성이여 돌아갈 곳이 있지 않은가!?

기혼여성, 장기 근속자, 비정규직, 나이 등 의 이유를 들어 여성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시키고 있다.

<사례2>

2기획에서는 마케팅실 70명 중 10명에게 권고 사직형식을 띠면서 퇴직을 유도. 10명 중 8명이 여자(기혼 7명, 미혼 1명). 개별 면담에서 이사가 부양가족이 없거나 맞벌이 부부가 선정기준이라고함.

<사례3>

삼성 에버랜드에서 9년 9개월 근무한 김미경씨(리조트 사업부)의 경우 지난달 17일 여직원 10명과 함께 갑자기 권고 사직을 받고 현재 대기 발령중에 있다. --고평추, '여성차별 해고 신고창구'

<사례4>

대우자동차에서 10년간 근무한 윤계화씨 신고에 따르면, 52명의 여직원을 대우자동차에서 대우자판으로 파견발표했으나 지난 5일 자판에 여직원을 받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다며 보직대기로 재발표, 자연스럽게 해고로 유도했다고 한다. ---고평추, '여성차별해고 신고 창구'

③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단지 여성개인의 문제이다 !? 그리고 여성의 임신과 생리는 기업의 생산성에 장애가 된다!?

<사례5>

서울의 전자에서는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임신 중의 몸으로 회사에 나와 몸고생, 마음 고생하느니 차라리 좋은 조건을 제시할 때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이며, 출산휴가를 들어가더라도 보직대기발령나는 건 편하니 차라리 지금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며 임신 중임을 강조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 파견근로제에 의해 더욱 더 가중되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정리해고의 칼 바람이 법이라는 힘을 등에 업고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7월부터 '파견근로제'가 시행됨으로써 노동자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갈 것이다 근로자파견제한 파견회사가 소속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A회사가 자체 고용한 근로자 갑을 B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정기간 B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할 경우 A사는 파견사업자, B사는 사용자사업자가 된다. 그리고 두 회사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 갑은 B사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파견근로제는 우선 계약의 주체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와 사용자업체에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교섭과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주와 사업주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자주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게 된다. 게다가 파견된 노동자는 승진과 승급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규직 임금의 70-80%만을 임금으로 받게 된다.

이때 파견된 노동자는 사용자주가 지불하는 임금 전부를 가질 수 없으며 파견업체를 거쳐 그것의 70-80%만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중의 착취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파견근로제는 결국 노동의 임시직화 비정규직화를 증대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폐기해버림으로써 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이제 상품으로서의 '노동'만이 남고 노동'자'는 시야에서 지워져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된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분리는 상대방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낮은 대우를 받게되고, 정규직은 사용자가 언제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이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

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견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이 더욱 더 가중될 것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정리해

고 1순위인 현 경제 위기 속에서, 파견 근로제는 정리해고로 가는 중간 단계이자 그것을 수월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임이 뻔하다. 게다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은 전체 여성의 5.8%에 지나지 않으며, 62.7%에 이르는 여성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 근로제란 그러한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어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의 시행으로 현재 약 22만 5천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현재 청소, 경비업 만이 파견근로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나머지 업무에서 이루어지는 파견근로는 불법인 것이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불법용역에 의한 이중착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 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특히, 가사형편으로 직장을 그만 둔 가정 주부나 고령자 등 단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형태의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큰 소리를치고 있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여성, 집안에 틀어박힐 수밖에 없는 여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아무 일'이나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직장 일은 남성에게 맡기고 집안 일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남는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면 직접 나서서 돈을 벌라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위기를 틈타 여성을 집안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뻔뻔스럽게도 궁지에 몰린 여성에게 선심 써주듯 '식은 떡'을 던져주는 심보는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성들이 집안으로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게다가 노동부가 지정한 파견근로 대상업무 27개 가운데 영양사와 컴퓨터 보조원, 타자원, 학원강사, 전화교환원, 비서 등 여성인력이 70-80% 이상인 업무 분야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몇몇 여성 집중 업무에까지 파견근로제가 도입되어 여성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 대상을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안에는 비서·타자원·보모·간병인·도서·우편 및 관련사무원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업무까지 대상업무로 지정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정한 파견근로 대상업무〉

△컴퓨터 전문가 △사업전문가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전문가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도안사 △컴퓨터보조원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용 △공중보건 영양사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원 △전화교환 사무원(전화교환원의 업무가 해당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는 제외) △여행안내요원 △조리사 △보모 △간병인(간호조무사는 제외) △가정 개인 보호 근로자 △자동차 운전원(대중교통수단 운전원은 제외) △전화외판원 △건물청소원 △수위 △경비원

▶실업률을 높이자?

IMF 구제금융 이후 많은 아버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매킨에서 연일 양복을 입고 산에오르는 아버지들을 보며 주며 이런 패일수록 어떻게 아버지들의 기를 살려줄 것인가에 대해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아버지 즉, 가정의 실직으로 대변되는 실업의 문제. 아버지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실업률이 감소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발칙하게도 실업률을 높이자고 주장하려 한다. 경제위기 하에서 허울 좋은 실업률 감소가 얼마나 많은사실들을 은폐하고 있는 지를 알기에.

▶가족임금제, 불가능한 작전?

경제위기사 여성은 항상 희생양이 되어왔다. 그러나 정리해고 1순위라는 가시적인 사실보다 더 교묘하게 그 밑바탕을 받쳐주고 있는 전략은 가족임금제이다. 가족임금제는 한 가족의 생계책임자는 남성이며 이러한 남성가장의 임금이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어야 한다는 생계부양자 논리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식되어 있는 여성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실업률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성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실업자란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를 의미한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즉, '전업주부, 학생, 연소, 연로자,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에 관여한 자, 구직단념자'등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여성이 구직을 단념하도록 복지정책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기능을 확대시킴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막아 실업률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실제로 공식 실업률은 2.9%인 것에 반해 구직을 단념한 실망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28-2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의 실업정책이란 것은 공식적인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성에 대한 실업정책은 최소화하여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고 남성가장의 실업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1997년에 남성 실업률은 20.8% 증가한 반면, 여성 실업률은 60.0% 증가하여 여성 실업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실직한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돌아가라고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대책 대부사업의 경우에도 대부자격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정된다. 비세대주가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비세대주도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세대주가 생활안정자금 대부분을 받는 것은 세대주가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나 질병이 있는 경우 뿐이다. 단신 가구주 즉, 독신 가구는 대부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있으며 여성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라도 실업 대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상 호적 자체를 뜯어 고치거나 위장사고라도 내서 세대주를 입원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족임금제는 또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탁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게 만든다. 한 가족의 생계부양자인 남성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하에 여성은 자신의 고유영역은 가정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때문에 여성의 실업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IMF 구제금융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으로 부터의 이탈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1997년 2/4분기와 3/4분기의 경제활동인구 동향에 위하면 비가구주 여성의 경우 전 분기에 비해 7만 4천명이 감소하였으며 기혼여성이 그 중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내몰린 여성들은 가족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하게 되고 그 가족을 부양하는 남성가장을 떠받들게 되며 심지어는 남성가장이 해고의 위험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휘두르게 되는 폭력까지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족임금제의 폐지만이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다. 단신가구주 등 전형적인 핵가족의 틀을 벗어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아직 남성가장의 수입에 의존하는 가족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가족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아져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임금제의 폐지로 초래될 노동시장, 노동구조에서의 변화들이 더 많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닥쳐오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허울 좋은 그러나 실제로 고용 현실을 더 악화시킬 뿐인 정책들만을 제시하고 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세금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지 않나, 사회보장정책을 축소하여 여성들을 가정으로 내몰으로써 가시적인 실업률만 낮추려고 하지 않나. 가족임금제가 생계부양자 논리로 인하여 남성들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성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사회보장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 한 가정에서 생계부양자라는 존재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해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의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남성가장만을 믿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 지금이 어느때냐고?

2년전에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회생'을 아주 기분 좋은 졸림 속에 본 기억이 있다. 딱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느린 시간의 흐름 속에 나를 내맡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영화 경험이었다. '매일 한 그루의 나무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지금 나는 작금의 답답한 상황과 관련하여, 온 세상이 IMF라는 기표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절망하는 이 천재지변의 사태에 관련하여 이 똥판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하고 싶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급수혈'이 아니라 상황을 바로 보고 그에 맞는 질문을 던지는 움직임인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다. 이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터졌다 하면 해결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너도나도 달려들어 마치 화전농사를 짓듯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하면 거기서 물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보는 것.... 여기에는 자신들을 이 사회에서 '급진적'인 사고를 한다고 자처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 좋은 예로 최근의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열린 한 강연에선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성의 있고 진보적인 처방을 내놓은

한 (남성)교수가 '가족임금제'에 대한 비판 발제자에게 '이 시대에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했음을 밝히고 싶다. '여성문제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에나 제기할 수 있는 문화적일 수는 있으나 근본적일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식의 문제제기였다고 내 멋대로 오독했다는 점도 밝혀두자. ('가족임금제'의 허구에 대해선 이미 앞 자보에서 밝힌 예기므로 여기에선 일단 접어두도록 한다.)

이러한 시기에 여성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지 일할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사회 복지 제도의 노골적인 축소와 가능하지도 않는 가족임금제-남성이 혼자 벌어서 어떻게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한단 말인가?, 그리고 여하한 제도의 문제를 떠나서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가족내 권력관계와 위계질서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더 나은 대안적 사회의 구성원리를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현실로부터 시작할 때이다.

회장에게 날라든 검찰의 편지를 계기로 한총련, 전여대협 토론을 드디어!!!

붙인 자료는 작년 전여대협 3기 자료집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토론의 순서를 오늘과 초
이가 임의로 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여성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한총련과 전여대협의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①사상적인 면에서 그들의 '민족주의'에 관한 부분

물론 민족주의는 일관된 사상 체계라기보다는 다른 사상과 결부되어 구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총련 주류가 그들의 정치적, 사상적
입장으로 채택하는 '민족주의'안에서 이질성들이 얼마나 묻혀 버릴 수 밖에 없는 지에 관
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진행했던 세미나 자료 김은실 선생님의 글을 상기해 봅시
다.

②조직적인 면에서-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한총련과 전여대협은 어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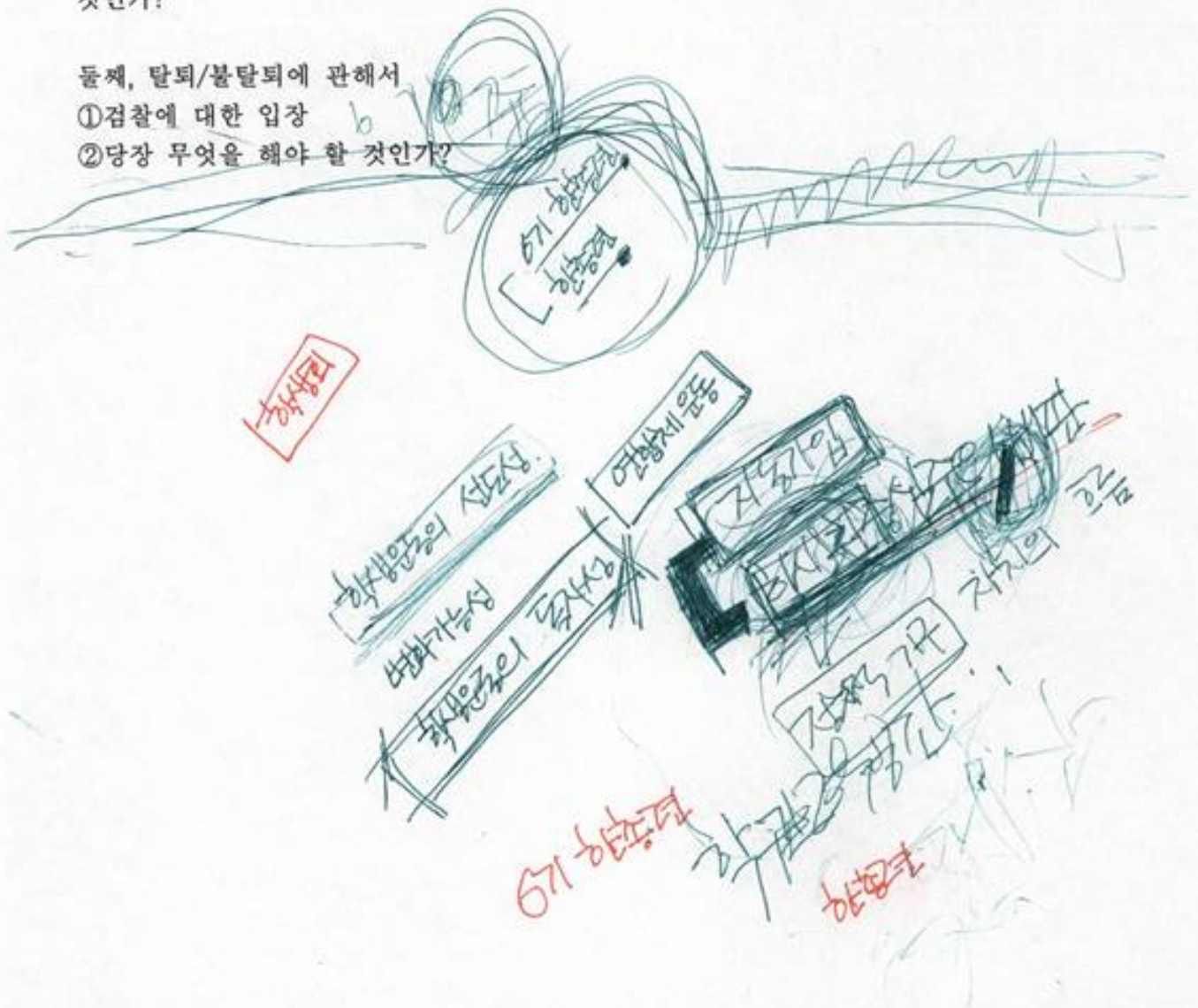
좌파에서 비판을 하는 맥락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서로를 상
기시켜 줍시다.

③새로운 흐름들-우리를 포함한 대학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정리. 무엇을 할
것인가?

둘째, 탈퇴/불탈퇴에 관해서

①검찰에 대한 입장

②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강령 및 규약 개정안

전여대협 전문

전여대협은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사상과 자본의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성 실현으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전여대협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한다.

전여대협 강령

- I.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 I. 이천만 여성이 차별 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인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 I.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조국을 통일한다.
- I.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반민족적, 성차별적 교육과 제도를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 자주화를 이룩한다.
- I.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제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 투쟁한다.
- I.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 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 I.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I. 백만청년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II. 총론

1.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

한국 여학생운동의 혁명전통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변혁운동의 혁명전통을 항일무장투쟁사에서 찾듯이, 그리고 90년대 학생운동의 혁명전통을 96조국통일 범민족 항쟁 안에서 찾듯이, 이 사회에서 전개되는 다른 여타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운동 또한 역사의 전통과 교훈을 제대로 받아안을 때만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 사회의 여성운동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분단과 함께 다른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남에서는 70년대에 가서야 여성운동이 다시 태동하게 되는 등 민족의 아픔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운동의 뿌리와 전통을 명확하게 밝혀 내는 일이 분명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언가 증명해줄 자료가 그리 풍부하지 못하다. 하지만 선배들의 활동을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 보는 것이 90년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청년 여학도로서 어떠한 고민과 결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항일 여성전사의 기백으로..

우리의 여성운동사는 여성이라는 처지의 특수한 요구와 민족해방의 달성이라는 두 과제가 통일되는 과정이었다. 일제의 식민지로 되는 시기에 여성운동은 시작되었고 곧이어 밀어닥친 식민지라는 현실은 우리민족의 최고의 과제를 독립과 해방으로 두게 하였다. 이 속에서 각 부문의 특수한 요구를 쟁취해가면서 새로운 사회 건설의 전망을 내오게 되는데 초기의 여성운동은 민족모순, 계급모순, 성모순을 각각 실현시키려 했으나 점차적으로 이 세 가지 모순을 통일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국내, 국외의 항일무장투쟁과 함께 벌어져온 여성운동을 되짚어 보며 교훈을 찾아본다면 첫째로 여성운동은 결코 그 사회 변혁운동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군정 이전에 활발히 진행되던 조선반도의 여성운동이 분단되고 미군정이 밀어닥친 이후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 하다가 와해된 것을 보면 여성운동 또한 민족해방, 계급해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케 해주는 것이다.

둘째, 올바른 사상에 근거한 여성해방이념과 조직적 도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일무장투쟁

을 전개하면서 반제반봉건 여성운동이라는 여성해방이념이 굳건히 자리잡아 가는 속에서 여성운동은 발전할 수 있었다.

셋째) 여성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여성대중들과의 결합을 밀접하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게 한다. 특히나 여성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여야 하는가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다.

97년의 청새가 여학생운동에 요구하는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가?

여학생운동의 혁명전통을 항일여성전사들의 투쟁에서 찾는다할 때 97년 여학생운동이 가져야 할 지위와 역할 또한 너무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김영삼 조기타도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는 청년학생운동의 부문운동이란 인식 속에서 우리 여학우들을 전민 항쟁의 주역으로 되도록 투쟁을 일구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이 여학우대중을 주인으로 세워가고,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운동이라면 전민 항쟁에서의 자기역할 청년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투쟁목표와 과제를 여학우들과 함께 공유해 가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반민중, 반민족, 반인륜 정권인 김영삼 정권 하에서 우리 민중의 삶이 어떻게 피폐화되어가고 있는가를 짚어내면서 여학우들을 자신의 처지에서부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게 하고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서 나서게 하는 운동으로서 여학생운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민중여성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바탕으로 전민 항쟁에서 여성운동을 견인하고 지지, 지원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전민 항쟁은, 청년학생들만의 힘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광범위한 민중의 힘을 무어 내지 않고서 전민 항쟁의 닻을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여성운동에서 노정 되는 한계는 참으로 많지만 그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층 조직과의 구체적인 연대를 통하여 전체 여성운동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작은 노력들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여학우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연대 속에서 민중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민중의 힘을 알게 되어 식민지를 살아가는 청년 여대생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거듭 나게 될 것이다.

2. 여학생운동의 혁신강화를 위하여

97년, 그리고 이후 여학생운동의 혁신, 강화를 위한 제언

전여대협은 정말 우리 선배들의 피어린 투쟁 속에서 건설된 조직이다. 더 이상 말로서 전여대협 강화를 외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도 선배들과 같은 피어린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여기서 이남 사회 여학생운동의 정리를 하든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온 것이다.

여학생운동의 조직이 건설되고 여학생 운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바로 학생운동의 조직이 건설되고 학생운동의 전망을 고민하게 된 시기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고민은 시작된다. 왜 학생운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여학운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운은 학운과 같은 비약적인 변화발전을 일구어 오지 못하였는가.. 3기를 맞이한 전여대협. 이제 더 이상 정체된 여학생운동의 현실을 관망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말 작은 성과에만 만족하고 '이 정도면 잘했네'하며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학생운동이 이대로만 나간다면 잘하면 3년은 우려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이상을 버텨 나갈 수는 없다.

혁신! 그것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이 있을 때만 혁신은 실현되는 것이다. 과연 여학생 운동을 혁신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은 무엇인가, 여학생운동이 정체의 나락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배후 조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간의 여학운의 한계 지점

그 동안의 여학운이 쌓아 온 성과에 대해서는 위의 전여대협 역사에서 다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여대협에게 있어서는 성과 지점을 잘 끌어내고 그것을 승리적으로 총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한계 지점을 냉철하게 짚어내는 것이다.

먼저 여학생운동의 사상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학생 운동은 전체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때 여학생운동의 사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심적인 흐름, 내용을 짚어갈 수 있는 사상적인 중심은 있으되 그것을 대중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론, 방법이 부재하다는 얘기다. 이 말은 다시 여학생운동에 대한 꾸준한 연구, 조사사업이 부재했다는 것과 통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학운 그간의 부재했던 연구사업으로 인해 아직까지 여학생운동은 자기운동을 풀어 가는 지침이 되는 사상을 제대로 정립해내지 못함으로 하여 온갖 잡다한 이론과 정견들이 난무하는 혼탁함을 또다시 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여학생운동의 일관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여학생 운동이 학생운동과 구분되는 한계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 운동을 고민하던 간부들이 운동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시작하게 되는 시기는 학생운동 골간에서 일하는 간부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학생운동을 정리하는 시기를 가만 살펴보자, 여학단위 간부들 중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5-6년을 결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봐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도 7-8년을 운동하는 골간의 간부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총련에도 한총련 운동만 4-5년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여학생회 단위나 여대협은 어떠한가. 1년 다시 여학운으로 재투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지경이다. 물론 행생운동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열의 높은 간부라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이 오래되면 관성화 될 수도 있고 관료화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학생회나 여대협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관성이나 관료화를 두려워하면서 재투를 결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년도 여학생회 간부들이 남아 있지 못함으로 하여 어려움을 겪는 단위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전여대협과 지역여대협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작년에 활동을 하던 사람이 계속 함께 고민을 풀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여대협을 운영해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학운동의 일관된 흐름을 갖는다는 것은 결의된 간부들로부터 재투를 결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1년의 활동 과정 속에서 문제와 한계가 무엇인지 무엇이 실질적인 성과인지, 그리고 작은 실무 일일까지 흐름을 익혀 가고 배우게 해줄 수 있는 전임의 간부들이 우리에게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로 여학간부들이 변혁 운동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학간부들은 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학일꾼으로 결의를 하게 된다. 골간에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체 운동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고 여학운동에 대한 고민을 풀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학단위에서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운동에 대한 고민보다는 여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풀어 가는 사람, 여성학 학회 등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여 여학생회 선배들과 고민 얘기하고 수요집회도 나가고 하다가 운동을 시작한 사람, 아니면 여학생회가 운동권이 아닌 것처럼 보여 들어왔다가 서서히 운동권이 되어간 사람.. 등 여러 가지의 계기와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여학일꾼이 되는 경로가 다양한 것처럼 여학일꾼들의 사상적 수준의 차이도 엄청나다. 요사이 전반적으로 학생회 일꾼들의 사상적 수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학간부들은 어찌 보면 그 낮은 전반의 수준보다 사상적 깊이가 더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 운동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여대협이라는 조직이 왜 있어야 하며 그 조직의 지도력을 구축하고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대협에 대한, 나아가 한총련에 대한 조직관을 세우는 것, 그리고 민중 여성들의 삶을 체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 변혁 운동의 사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에서부터, 그것을 자기 운동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으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항일 여전사의 기백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우리, 여학간부들이여, 다시 한번 냉철히 우리를 보자. 그리고 결의를 높여 내자!

여학운의 한계에 대해서는 각 단위에 있는 총여학생회장님들을 비롯한 여학기구의 대표자들이 더 잘 알고 또 고민도 풍부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 인식들을 하나로 정리하여 전여대협이 혁신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해 내는 것이 지금 시기 여학생 운동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닐까 한다. 그 동안의 여학운에 있어서의 한계는 너무나 많다. 97년 3기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한계들이 쌓이고 쌓여 더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예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여대협마다 작년보다 늦게 대표자 회의를 가져갔고, 지역여대협의 지도력을 구축하는 과정도 많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 회의 안에서 더욱 혁신할 결의를 다지고 올해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서 내년에 우리 후배들에게는 더 나은 여대협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하자는 결의로 충천하다. 서여대협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11기 서여대협을 꾸려 가면서 여대협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잘 세워 나갈 것을 결의하며 힘있게 여대협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고, 남여대협은 연대 항쟁 이후로 작년 대표자들의 대부분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여대협을 되살려 보자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러한 상황은 대경, 부경 등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르지 않으며 충남에서도 여대협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봐도 우리는 여대협의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의 기운이 97년에 더욱 높아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할 시기에 결의가 높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누구나 그만큼의 결의를 세울 수는 있다는 얘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결의를 어떻게 일년 내내 일관되게 가져가면서 자기 목표를 계속 발전시켜 가는가 하는데 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주 나쁘고 회생 불가능의 한국 경제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만큼의 문제의식과 결의가 있고 이만큼의 위기의식이 있으니 여대협, 여학운 강화라는 우리의 목표가 크지 만키만은 않다.

철저히 변혁 운동의 사상에 근거하는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청립해내고 결사의 결의로 올 한해를 전여대협, 지역여대협, 단위대학 총여학생회 혁신의 해로 이끌어가자!!

선배들의 투쟁의 역사에서 얻어진 교훈이 있다. 한 번 겪은 오류를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학생운동이 정파간의 갈등으로, 개성과 다양성에 대한 논쟁으로, 운동의 대중화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진통을 겪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겪어 오면서 알고 있다.

운동 통일 단결은 분명 하나의 원칙과 중심에 합의하는 것이요, 막무가내로 애매한 두리에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쏟아 부어 놓는다고 하여 다양성을 포괄한 통일단결 따위로 칭송될 것이 아니다. 이남 사회가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라는 규정을 내리는 속에서 여학생운동을 비롯한 모든 부문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면 그러한 사회성격에 근거한 여학운의 사상을 정립해내는 것, 그리고 원칙을 견결히 지켜 학생운동에서 보여진 문제점들을 또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개량과의 투쟁을 견결히 해내는 것,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마련해내고 원칙을 마련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여학간부들의 삶의 지표로 세워내는 것이 바로 3기 전여대협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우리 사상의 중심을 옳게 틀어쥐고 이남 사회의 변혁에 복무하는 강철같은 여학운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자..

Ⅲ. 3기 전여대협의 과제와 핵심방향

1. 혁신과제

여학운동의 사상을 바로잡고 간부 대오의 사상적 수준을 높여 내는 것, 그리고 단위 학교 총여학생회는 자기 결의를 높여 내는 가운데서 당장 주어진 사업을 접고라도 올해의 혁신의 과제를 실현할 것에 중심을 맞추고 1년의 계획을 세워가야 하겠다.

▲ 올바른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정립하자!!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사상은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인 이남 사회의 변혁에 복무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사상이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사상은 민중 중심의 사상이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사상은 민족 화해, 민족대단결의 사상이다.

▲ 간부 혁신의 과제

여학간부들은 사상 학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여학운 역시 변혁 운동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남사회에서 여학운을 하는 사람이 변혁운동에 대한 관점이 서있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학우들을 만나고 민중들을 만나갈 수 없다. 여학간부들은 단위학교에서, 지역에서 사상의 핵심으로 서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상학습에 매진하자.